

## 기업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다양한 독자 목소리 반영할 수 있을까

직책	성명	직함			
					위원장 박병대 송월 회장
박병대	강동석	강영복	구태환	권은화	위원 강동석 동진기공 회장
					위원 강영복 해안산업 대표
					위원 구태환 세지솔로텍 대표
					위원 권은화 나빌레라 이사장
					위원 김명성 스타우프코리아 대표
					위원 김명철 세진튜브텍 대표
					위원 김소연 법률사무소 예주 변호사
					위원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 총장
					위원 김은수 동일 대표
					위원 류상훈 모든 대표
					위원 문용훈 대성해운 대표
					위원 신홍주 성호해운 대표
					위원 안용모 중앙수산 대표 근해트롤어업협회 회장
					위원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
					위원 이나영 필라테스 지도자
					위원 이성진 미화합동 대표
					위원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
					위원 이화행 동영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위원 장제국 동서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위원 장철훈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
					위원 전창래 갤러리604 대표
					위원 정경호 (사)희망유연어는사람들 상임이사
					위원 조승원 세화전설 대표
					위원 조시영 명진TSR 대표
김명성	김명철	김소연	김영도	김은수	
류상훈	문용훈	신홍주	안용모	양재생	
이나영	이성진	이영래	이화행	장제국	
장철훈	전창래	정경호	조승원	조시영	

△부산일보 5월 28일 19면 3기 독자위원회 명단

지난 26일 부산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틀 뒤 <“언론 사명 충실하도록 움부즈맨 역할 최선 다할 것”>에 담겼습니다. 부산일보는 기사에서 “독자의 목소리에 한층 충실히 귀 기울이기 위해 제3기 독자위원회를 다채롭게 구성”했다고 설명합니다. 정말 ‘다채로운 구성’일까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체와 학계, 시민단체, 공연과 전시예술계 등 분야를 늘어놓았지만, 전체 25명 독자위원 중에 기업인이 1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남성은 22명인데 반해 여성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직함을 훑어보면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장, 대표, 총장, 이사장, 상임이사입니다. 직업과 성별, 직급과 나이에서 특정 계층을 과대 대표하는 구성입니다. 독자권익 보호와 소통 창구라는 독자위원회 본래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소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 간의 네트워크에 주력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직업군	인원수	비율	성별	인원수	비율
기업인(대표)	16명	64%	남성	22명	88%
교수(총장)	4명	16%	여성	3명	12%
문화예술스포츠	3명	12%			
변호사	1명	0.4%			
시민단체	1명	0.4%			
합계	25명	100%	합계	25명	100%

△부산일보 3기 독자위원회 직업별/성별 비율

역대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구성과 비교해봐도 다양성 지수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2010년 부산일보 독자위원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6:8이었습니 다. 2010년 부산일보 독자위원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6:8이었습니 다. 대학강사, 공기업 차장, 자활센터 실장, 지역대학 취업지원관, 학생, 기업 대표이사, 시민단체 중계실장, 주부, 사진예술가로 직업군과 직급이 다양했으며 외국인도 포함했습니다. 독자들의 다양성 민감도는 10년 전보다 훨씬 향상됐는데 부산일보는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 언론이 위기라고 합니다. 떠나가는 독자를 붙잡고 지역 독자를 발굴하는 데 성패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독자위원회는 언론사와 독자가 직접 소통하는 대표적인 창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편중된 독자위원 구성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독자위원회는 격월 간격으로 지면 평가를 하면서 지역 사회의 주요한 의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의제 선정과 토론 내용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아울러서 부산일보 지면이 명실상부한 부산 시민의 소통 창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독자위원회는 구성부터 독자권익과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강석원



김영민



박선미



백영순



쁘리야 김



서명옥



앤드류 존스톤



염정옥



우병동



이대선



이진로



최명림



하정미



황재문

강석원 부산교통공사 경영본부 차장

김영민 언론인

박선미 대학 강사

백영순 부산서구지역자활센터 실장

쁘리야 김 사진예술가

서명옥 주부, 독서지도사

앤드류 부산영어방송 리포터,  
존스톤 부산시청 영어감수관

염정옥 변호사

우병동 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대선 (주)녹채원 대표이사

이진로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 영산대 교수

최명림 동주대학 취업지원관

하정미 동의대 언론광고학과 석사 과정

황재문 부산YMCA 시민중계실장

### 부산일보사

△2010년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명단

# “언론 사명 충실하도록 옴부즈맨 역할 최선을 다할 것”

‘지역에 더 가까이, 독자에 더 가까이’  
부산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출범식

부산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가 출범했다. 부산 일보는 독자들의 목소리를 신문 제작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옴부즈맨 제도의 일환으로 독자위원회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부산일보사(대표이사 사장 김진수)와 부산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박병대)는 지난 20일 부산 수영구 수영중 5층 세미나실에서 독자위원 24명과 부산일보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지면 평가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일보는 독자의 목소리에 신속 대응을 위해 귀 기울이기 위해 제3기 독자위원회를 다채롭게 구성했다. 기계, 행정, 수산, 해운 부문은 지역 기업체 대표를 비롯해 대학,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공민과 정사태에게, 의료계, 20대 청년 대표, 여섯 자녀 아버지 등 각계 각층의 20대~40대 리더 25명으로 구성했다.

제3기 부산일보 독자위원장은 박병대 송철(주) 회장이 맡았다. 이날 출범식 행사는 기념사진 촬영, 제3기 위원장 인사말, 독자위원 위촉배 수여, 독자위원 소개 및 인사, 독자위원 운영 방안 소개, 지면 평가, 만찬순으로 진행됐다.

박병대 위원장은 “3기 독자위원회는 직능·나이·성별이 더욱 다양해지고, 1~2기 때보다 젊어지는 세대도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면 개선 의견을 개진, 부산일보가 독자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수 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3기 독자위원회는 독자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려는 자세에서 역대 가장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모셨다”며 “현재 부산일보는 해경수산 등 특화 콘텐츠를 강화한 데 이어 온라인 시대를 맞아 독자 맞춤형 뉴스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이제 지역 언론이 지역 태미를 주도해야 하는 시대에 있는데 독자위원님들이 지역 태미를 발굴해 주시면 심층 기획 보도와겠다”며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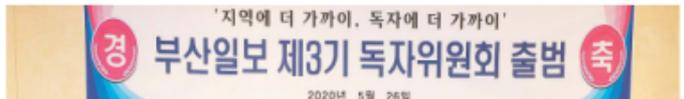
박병대 위원장 “더 사랑받는 부산일보로”  
현안 취합해 심층 토론 방식 논의를  
“부산일보 ‘디지털 퍼스트’ 적극 노력  
더 젊고 건강한 뉴스 발굴 노력할 것”



러면의 귀중한 한 말씀 한 말씀이 부산일보가 가는 길을 결정하고 선도를 짓어주고 보인다.

제3기 독자위원회 김동석(동진기공 회장) 고문은 “지금 부산 최고의 현안은 동남권 권문 공장이다. 30년간 권문 공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이루어질 것이다”로 부산일보가 다시 한번 여론을 환기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성(온산해운항공 회장) 고문은 “부산일보가 잘 돼야 부산이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마음으로 독자위원들이 힘써서 충실한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경(명진TSR 대표)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강영복(해안인업 대표), 김영성(스파우프고려아 대표), 강경도(동명과학대학교 총장), 이희영(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장제국(동서대 총장) 부위원장은도 각각 “부산 일



부산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박병대 위원장 등 위원들이 지난 20일 부산 수영구 수영중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김진수 사장 등 부산일보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위는 박병대 위원장이 향후 운영 방침을 설명하는 모습. 아래는 독자위원들의 지면 평가 회의 모습.

문을 위한 기대 달인을 제시하고, 이어아가는 독자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부산일보가 지역에 가까이, 독자에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상황이 필요하면 부산일보의 슬로건이 “당신을 응원합니다”이다. 힘든 이를 응원하는 기사를 기대한다” “디지털 퍼스트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부산일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독자위원의 결의하는 뜻이었다. 객관적인 자세에서 비평에 부산일보가 나아가 발전하도록 조력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각각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을 맡은 김경철(세진투보 대표), 김소연(법률사무소 예주 변호사) 독자위원은 “중책을 맡아 아껴가 무급지만, 독자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이함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년 역사의 부산일보가 더 젊고 건강한 뉴스를 내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또 김소연(법률사무소 대표) 독자위원은 “부산일보가 지역발전은 선도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도록 다른 위원들과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태환(세지승호제 대표), 권은희(나원제이 이사장), 유상훈(모든 대표), 신종주(성호애는 대표), 안승모(중앙수산 대표), 이나영(원리텍스 지도자), 이성진(미합항공 대표), 이영태(부동산사제이 대표), 장필훈(영산 부산대병원 교수), 전창대(엘라리04 대표), 정

경호(경합솔에어사들 상임이사), 조승원(세종전설 대표) 독자위원은 “자율자부동, 석유화학, 수산, 컨설, 부동산, 문화예술, 전자기술, 의료, 다문화가정, 20대 청년, 사회적 기업 등의 다양한 현안을 발굴해 부산일보 지면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박병대 위원장은 이날 “3기 독자위원회는 심층 및 집중도의 방식으로 강행권 계획”이라며 “독자위원이 사전에 현안을 발굴해 의견을 보내 주시면 이를 취합하고 선정된 후 본회의 때 제안자가 주제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 토의하겠다”며 독자위원회 향후 운영 방향을 밝혔다.

합철 신영기 기자 scim@busan.com



3기 독자위원

위원장 박병대 송철(주) 회장	김경도 동명과학대학교 총장	김진수 (주)명진TSR 대표
고문 김동석 (동진기공 회장) 양재성 온산해운항공(주) 회장	이희영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소연 (법률사무소 예주 변호사)
수석부위원장 조시경 (명진TSR 대표)	정제국 동서대 총장	권은희 (나원제이 이사장)
부위원장 강영복 해안인업(주) 대표 김영성 스파우프고려아(주) 대표	사무총장 김소연 (법률사무소 예주 변호사)	유상훈 (모든 대표)
	사무부총장 김소연 (법률사무소 예주 변호사)	신종주 (성호애는 대표)
	위원 구태환 (세지승호제 대표) 권은희 (나원제이 이사장)	안승모 (중앙수산 대표)
		이나영 (원리텍스 지도자)
		이성진 (미합항공 대표)
		이영태 (부동산사제이 대표)
		장필훈 (영산 부산대병원 교수)
		전창대 (엘라리04 대표)
		정경호 (경합솔에어사들 상임이사)
		조승원 (주)세화인도 대표

△ 부산일보 5월 28일 19면 기사